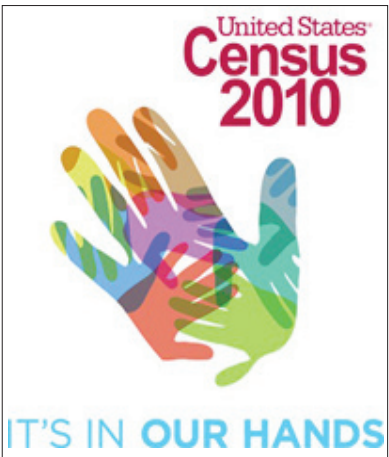


아태법률센터 LA 시장과 함께 센서스 기자회견 가져

미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인구센서스 참여해야



2010년 인구센서스를 앞두고 아태법률센터와 미주 한인봉사회교역단체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지난 25일 아태법률센터에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2010년 인구센서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00년 인

구센서스 누락 인구가 캘리포니아 전체의 누락 인구 가운데 35%나 차지하는 등 센서스 불참이나 누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등 아시아계 센서스 불참 이유는 이민 신문에 따른 불안감과 언어장벽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센서스는 이민신분에 대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의 보안이 철저히 보장되는 안전한 조사로 안심하고 참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센서스 2010은 오는 3월 13일부터 센서스 설문지가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은 가구에 는 이후 센서스 직원들의 직접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인구센서스 2010이란 무엇인가? 매 10년 마다 연방정부가 센서스 사무국을 통해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방문자,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센서스에서 조사된 인구는 연방정부의 예산 분배(학교, 병원, 도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석 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센서스의 인구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지난 인구조사는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AAPI) 커뮤니티에 손해를 끼쳤다. 지난 2000년 인구조사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1%, 태평양계 아메리칸의 약 5%가 실제 인구보다 적게 조사 되었습 니다. 이것은 2000년 인구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약 175,000명의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AAPI)이 누락됐으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가 21억 달러의 연방정부기금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각 커뮤니티 구성원이 정확

히 집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서스 2010을 위한 주요 날짜

2010년도 3월 초: 앞으로 하게 될 인구조사 설문지를 알리는 안내편지가 각 가정에 우송된다. / 3월 말: 영어가 불편한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와 러시아어 사용 가정이 10% 또는 그 이상인 지역에 확인 염서가 발송된다. / 4월: 인구조사 날- 모든 인구조사 설문지가 센서스 사무국으로 발송된다.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은 가정으로 대체 설문지가 우송된다. / 5월-7월: 인구조사 직원들이 인구조사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은 가정을 추가 방문한다. / 12월 31일: 센서스 사무국에서 총 인구 조사 결과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관련 웹사이트 (<http://2010.census.gov/2010census/language/korean.php>).

(지재일 기자)

이정현 목사, 남가주한인 목사회 43대 회장 취임

제43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24일 오후 4시 빛과소금교회(이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단 이취임과 원로 목사 초청위로잔치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목사회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1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현 목사

이날 행사는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나 성서부교회 김승근 목사의 설교, 이임·취임인사,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25장, 26절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데 왜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가. 첫째 성령을 떠난 생활은 물고기 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서 성령 없이 살면 삶이 곤고해진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살면 희락과 사랑 등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믿는 이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하며 성령 안에 살 때 목사회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취임사를 전한 이정현 목사는 “특별히 소임기간 불신과 분열이 많은 이민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개교회에 찾아가 I Love Pastor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임기 동안 열심히 일 해볼 것이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복음주의 지도자들, 아이티 외채 감면 촉구

세계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지진 참사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은 아이티의 외국 빚을 국제사회가 나서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 대정부 담당 부회장 리처드 시직 목사가 각 분야에서 뜻을 함께 하

를 촉구하는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단체다.

신복음주의 파트너십은 최근 아이티 지진 참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빛에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

부채 채무를 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빚으로부터 아이티를 자유롭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성명은 총 60명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성명에 공동서명한 주요 인사로는 조엘 헨터 박사(버락 오바마 대

리처드 시직 주축 ‘신복음주의 파트너십’ 성명 발표

는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손잡고 최근 설립한 ‘공동선을 위한 신복음주의 파트너십(New Evangelical Partnership for the Common Good)’은 복음주의 교인들로 하여금 “슬픔 속에 있는 자들, 다치고 살 곳을 잃은 자들을 위해 긍휼의 정신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

고 믿는다”며 “이는 특히 위기의 때에 더 긴급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이티의 강력한 대지진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이티의 사회 기반 시설을 모두 파괴시켰고 재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물질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아이티 정

통령 종교 자문 담당, WEA 북미이사, 집월리스 박사(소제너스 회장), 리처드 마우 박사(풀러신학교 총장), 새뮤얼 로드리게즈 박사(전미히스패닉크리스천지도자협의회), 데이빗 거쉬 박사(인권위원복음주의 창립자) 등이 있다.

(2면에 계속)



이 여인의 슬픔을 국제사회가, 크리스천 모두가 함께 지고 갈 때다. ©월드비전 제공

미주한인 전문이사 정보사이트 Click 하세요~
2424USA.com
자동차를 운반해야 하는데... 이사고인 해결!! 한차원 높은 이사 문화 이제는 인터넷에서...
어떤 이삿짐 회사로 선택해야 할까? 정거리 이사를 해야 하는데...
2424USA.com Tel: 310-808-9350 / Fax: 310-808-9353 15934 Figueroa St. Gardena, CA 90247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열방을 향한 교육선교와 그 기회를 제공하는 / 마28:19-20>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2010년 봄학기 특선편과목

- ▶ 1. 영어설교 특강 - 박학선 박사
-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어! - 영어 공부보다 영어를 Master 하자!
- 영어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 세상에 제일 쉬운 언어가 영어대
- ▶ 2. 스페인어 특강 - 우상범 박사
- 서반아어는 미국에 사는 Korean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 중남미 선교사 지망생에게 필수적인 언어! - 일반회화, 전도, 설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도!
- ▶ 3. 조리학과 특강 - 전모세 박사
- 보장된 삶을 위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단기코스!
- 스시, 사시미, 데방야기, 일본식당 창업, 기초회화!
- 영주권 획득에 가장 빠른 지름길, 높은 인컴, 99% 취업보장!
- 전 세계에 저비용 선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 4. 보혈의 신학 특강 - 김창식 박사
- 논문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기독교 특강!

원서 : 2010년 1월 29일(금)까지 / 봄학기 시작 : 2010년 2월 1일(월)

정규과목

- ▶ 신학사, 목회학석사 과정 (Th.B, M.Div.)
신약개론, 히브리어 문법, 한국교회사, 예배학, 설교학, 교회헌법정치학, ESL
- ▶ 목회학 박사 과정 (D.Min.)
Legal Issues in Ministry, Pastoral Theology Seminar, Spirituality Seminar
- ▶ 사회복지학과 (Social Welfare)
Community Based Social Work Practice (공동체 복지를 중심으로)
Social Work Practice: Family Treatment (가족 치료를 중심으로)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Settings (정신지체 치료를 중심으로)
- ▶ 히스패닉 사역자들을 위한 Class (Spanish로 강의)
Survey of the Old Testament, Church History, Systematic Theology, ESL

- 본교는 주정부교육국(BPPVE)으로부터 공인된(94900/94915) 학위인가(School Code:1929311)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정규교육기관입니다.
- 미주 한인 기독교총연합회 인준으로 국제기독교신학교대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주 한인 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 인준으로 목사고시 후 목사안수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학교 213-381-7007 / 213-248-0170 (조리학과 직통) 714-501-6613 E-Mail: info@californiacentraluniversity.org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총장: 심태섭 (Th.D.) President Thomas Tai Sim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지진에 희생된 목회자 기리며 UMC 1백만불 모금

교단 구제위원회, 목회자들 아이티에서 활동 시작해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다. 평소 아이티를 사랑하며 그곳에서 구제활동을 펼쳐 왔던 두 명의 연합감리교회(UMC) 목회자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그들의 아이티 사랑을 기리는 연합감리교회인들은 지진 이후 현재까지 1백만불 이상을 모금하며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후, 연합감리교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스나미, 허리케인 등 전세계 재난 현장에서 직접 구제하는 연합감리교회 구제위원회의 총무 샘 디슨 목사와 선교지원본부 책

임자 클린튼 램 목사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며칠 뒤 두 목사가 발견됐지만 턱슨 목사는 구조대원이 구출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램 목사는 긴급히 플로리다로 후송됐으나 결국 그도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들의 죽음에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조엘 마틴즈 감독은 "딤크 목사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늘 섬겨왔다. 그의 죽음은 전세계의 가장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구제사역에 큰 손실이다"라고 밝혔다. 서부 오하이오의 브룩 오우 감독은 "람 목사의 구출 소식 듣고 감사드리지 얼마 되지 않

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다"고 애도했다.

이 두 목회자의 소식이 알려지니, 연합감리교회는 일주일만에 1백만불을 모금했다. 조엘 마틴즈 감독은 "이 헌금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연합감리교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강한 서약이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합감리교회 구제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도미니카에 도착했으며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이티 구호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다수가 아이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샘 디슨 목사와 클린튼 램 목사 © UMC

로이드 롤린스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를 통해 구호 활동 중이며 존 맥클로우 목사는 현지 단체들에 Church World Service의 기금을 전달했다. 레이 부찬란 목사는 Stop Hunger Now를 통해 긴급 식량을 제공했다.

(김준형 기자)

영국인 절반 이상 "이슬람이 사회분열조장"

강경 무슬림들의 집단 행동에 위협 느껴

영국인의 절반 이상은 이슬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올해 영국인 사회 태도(BSA) 연례 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영국인이 이슬람에 의한 사회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는 영국이 종교에 의해 분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55%는 영국 내 급격한 이슬람 교세 확산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영국인들 대다수가 기독교 국가 전통이 무너지는 데 뒤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를 입증하듯, 조사에 응한 총 4,486명 가운데 45%가 "종교적 다양성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집 주변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데는 75%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15%만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

다. 조사 연구에 참여한 맨체스터 대학교 인문학 교수 데이빗 보아즈 박사는 이같은 결과들이 영국인들 대다수가 이슬람을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비무슬림의 인권에 치명적인 침해가 될 수 있는 규율을 포함한 샤리아 법 도입과 같이 강경 이슬람 세력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아즈 박사는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은 나아가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 자유가 제한받는 것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즈 박사는 최근 영국 정부의 사회 화합 정책이 이슬람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거꾸로 집 주변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데는 75%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15%만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

(손현정 기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로버트 박 석방 촉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북한에 로버트 박 선교사를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반 사무총장은 북한에 로버트 박 선교사의 가족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를 석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선교사는 지난 해 25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자진 입북했다 체포됐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반 사무총장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시해 왔으며, 미국 정부 역시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경우는 지난 두 여기자 억류 때와는 달리 자

진 입북한 경우이며, 로버트 박 선교사가 미 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인권 문제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래 저래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도 특별한 언급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손현정 기자)

"여성 굴종의 상징 '부르카', 佛엔 설 자리 없다"

프랑스 총리 프랑수와 필롱(Francois Fillon)이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Bruca) 금지법안에 대해 12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집권여당 UMP 의장인 장-프랑수와 코페(Jean-Francois Cope)가 제시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코페는 지난 12월 말, 1월 말로 예정된 국회 토론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부르카 금지법안을 대중에게 발표해, 특히 집권여당 UMP내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또한 지난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르카는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고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며 프랑스에는 이런 비인권의 상징물이 설 자리가 없다"고 밝힌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집권여당 UMP 지도부 대다수

는 이러한 제안은 아주 성급한 것이며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장-프랑수와 코페를 비난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는 우경화와 반인권 논란으로 얼룩진 프랑스 국가정체성 대토론회가 진

프랑스, 종교 상징물 논쟁중

행 중이다. 지난 10월 25일, 에릭 베송(Eric Besson) 이민장관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는 평등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는 사실을 통해 "역사, 문화, 종교 등을 망라해 프랑스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열린 이번 대 토론회의 목적이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과 정부 여당의 우경화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실수를 인정하고 토론의 방향성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인도 시크교도들이 터번을 금지하는 법안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인도정부와 전세계 해외 거주 인도인에게 그들 종교의 정체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도-아시아 뉴스 서비스 IANS지는 1월 8일자 신문에 밝히고 있다. 시크교도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시크교에 대해 무지하며, 그들을 강력한 사회, 정치, 행정적 압력세력의 희

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크교도들의 문제는 2004년 3월에 프랑스국회가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학교, 병원, 시청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시작되었다.

이들 시크교 대표단은 파리의 4개의 시크교 기도소의 대표단과 프랑스에 사

는 대략 4천명의 시크교인들이 서명한 결의문을 1월 중 인도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결의문에는 프랑스 교육시스템에 훌륭하게 적응한 시크교 어린이들이 공적인 일을 할 때 터번 쓸 자유를 얻기를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김지영 객원기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1면에 이어>

이번 성명은 향후 5년간 아이티 정부에 3천8백만 달러의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한 세계은행(IBRD)의 최근 결정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티 재건을 위해 1억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지진 참사로 인한 아이티의 짐을 나누려는 국제사회적 움직임에 고무된 북유럽의 지도자들이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아이티는 지난 12월 발생한 지진 이후 약 2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상황이 워낙 커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이티 정부는 지진으로 국민의 3분의 1인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사망자 수가 20만 명, 부상자 수가 25만 명 정도에 이재민이 150만 명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독교일보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박해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중헌, 고승희, 민종기,정우성, 김해성

발행일: 조요한
지사장: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 Tel:(213)739-0403,0404 / FAX:(213)739-0408
Mail:newspaper@chdaily.com

주소: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NY/P.O.Box 541136 Flushing, NY 11356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심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아이토크비비가 히트상품인 이유!
로컬/장거리/국제전화까지 무제한

첫째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체 (TAX 포함) \$24.99 /월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둘째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행사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30일 환불보장****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아카운트로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가능
- 간편한 전술선이나 IP BOX가 없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해외로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등한 안정성인 통화 품질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제전화할 때 간편하게 고쳐받기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0%
- Call Center를 통해 한국에서 간단한 전화문의도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입 및 문의전화 **1 800 872 2902**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위한 '중보기도'로 연합 도모한다

[이민교회 문답] 벨리연합장로교회 최재홍 목사

아홉번째 만남은 샌퍼난도 벨리에 위치한 벨리연합장로교회(PCUSA) 최재홍 목사다. 최 목사는 11년전 풀러신 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치노힐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년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목회 방향은 청년들과 동고동락하는 신앙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부족함을 느껴 개척을 잠시 그만두고 얼마인 베델 한인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이어갔다. 최 목사는 이곳에서 2년간 섬긴 후, 38년의 역사를 지닌 현재의 벨리연합장로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7년째 사역중이다.

-교회간의 연합은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중요하합니다. 벨리지역에서는 연합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벨리지역에서는 해마다 벨리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벨리지역을 살리고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벨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 중 하나인데,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성을 상업화해 만든 영상물이 제작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

다. 여기서 제작되는 영상물은 전세계 영상물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기도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벨리를 위한 연합 중보기도회가 교회간 연합과 지역을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연합중보기도회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았고,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은 3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12월 2주에 한주간 실시됩니다. 매일 다른 감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의 성도들도 참석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제목은 첫째, 벨리를 거룩케 하소서 둘째, 벨리를 부흥케 하소서 셋째, 벨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입니다.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당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연합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연합으로 부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벨리지역을 위한 중보기도회만 보더라도 연합으로 시작된 기도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변하고 또 교인이 변합니다. 그러면 변화된 이들로 인해 부흥은 자연히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집시다.(답전 4:5).

무엇보다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도자와 평신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기도를 통한 부흥을 꿈꾸며,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선교단체와 협력해 12주 이상의 선교훈련을 주보로 하고 있습니다. 주보가 단순히 교회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보기도 정보, 리더십, 성품관리, 성경공부 등 최근 정보와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주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서 교회와 선교지, 삶과 전도가 동일선상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최재홍 목사

입니다. "선교는 하늘의 축제이고 이 땅의 기쁨이다"라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인데 매주 나오는 주보가 주말만 쓰이고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기자)

아빠와 함께 아이티로 떠나요!

굿네이버스 아이티 긴급구호 자원봉사자 이야기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아이티 지진사태 현장에서 긴급구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한인사회의 많은 분들이 돕고 싶다는 연락을 다수 받았다. LA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목을 담당하는 강피터 목사와 딸 바이올라 대학교 3학년에서 재학 중인 강미셀 양도 이들 중에 하나다. 파견을 앞두고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봉사자 교육 중에 만난 강피터 목사는 "TV에서 지진으로 인해 참사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말을 꺼냈다. 아이티에서 통역 이외에도 고통을 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보였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라고 말한 강미셀 양은 긴급구호 현장에서 불편한 점들은 다

감수할 자신이 있다며 밝은 미소를 띠었다. 강피터(한국명, 강승철, 55세) 목사는 현재 LA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면 한국을 떠나 브라질에서 6년, 미국에서 41년을 살면서 분쟁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49개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풀러신 학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능통하여 이번에 전문통역자로서 긴급구호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강미셀(한국명, 강영애, 21세)양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선교봉사를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장차 의과대학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이다. 방학 때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을 위한 캠프나 수련회에서 음급처지지원으로 활동해왔다. 통역으로 자원봉사자와 긴급구호 후원문의는 1-877-499-9898.



LA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 강피터 목사와 딸 강미셀.

SWIM선교회 아이티 지하수 개발 후원교회 모집

'생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티 지진 현장은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5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자원봉

사자들이 의료 및 식수 등 구호물품을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 모든 재난에는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할 급선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불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깨끗한 우물을 공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SWIM(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임영호)선교회는 아이티 지진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동역 교회, 단체 및 개인 재정 후원자를 긴급히 찾고 있다. 임영호 대표는 스윈선교회에서는 "아이티 현지인들에게 직접 정수기 제

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직접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인들이 정수기 제작법을 배워 소규모 비즈니스도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윈선교회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

이 밖에도 스윈선교회는 아이티 현장에서 야외 화장실 제작, 공중위생 보건 훈련, 자연농업 농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수가 개발되고 농업, 축산이 가능해지면 자연농업을 통해 최저비용,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길러 아이티 현지인들이 먹을 음식을

지하수 개발 기계 한 대로 아이티 5천여 지역 지하수 개발 가능

Water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임영호)선교회는 아이티 지진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동역 교회, 단체 및 개인 재정 후원자를 긴급히 찾고 있다. 임영호 대표는 스윈선교회에서는 "아이티 현지인들에게 직접 정수기 제

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직접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인들이 정수기 제작법을 배워 소규모 비즈니스도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윈선교회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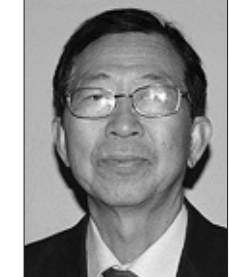
이 밖에도 스윈선교회는 아이티 현장에서 야외 화장실 제작, 공중위생 보건 훈련, 자연농업 농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수가 개발되고 농업, 축산이 가능해지면 자연농업을 통해 최저비용,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길러 아이티 현지인들이 먹을 음식을



다. 또한 이 목사는 제재회가 미국 교단과 동등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인 목회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고 저번 확대는 물론 목회자간의 조직을 위한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크리스천교회 제12대 총회장에 이성도 목사

크리스천교회(제재회) 미주한인교회 제12대 총회장으로 나섬중앙교회 이성도 목사가 선출됐다. 이 목사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원들의 인준을 받아 총회장 후보로 선출된 후 임원들의 동의로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불려 주신 것을 감사하다. 부르심 받은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총회장 선출 소감을 밝혔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아이티 지하수 개발 위한 후원 교회 모집

모든 재난에는 당장 의식주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할 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SWIM 선교회가 물 문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 정수기 제작, 야외 화장실 짓기, 공중위생 보건 교육, 펌프 수리와 같이 물과 관련된 사역을 약7년째 하고 있습니다.아이티의 재난 지역에 들어가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할 동역 교회, 단체, 개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SWIM 선교회 대표 임영호 드림



연락처 (714) 403-2121 임영호, 웹사이트 www.swim-usa.org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세계 호령하던 그룹 회장이 선교사 된 사연

영화 '수퍼스타 감사왕'으로 잘 알려진 옛 삼미그룹 2대 회장 김현철 씨가 기업가에서 선교사로 변신한 스토리를 중앙일보가 인터뷰했다. 서울 삼일빌딩의 주인이었고, 야구단 구단주였으며 특수강으로 세계 제패의 꿈을 꿔던 그는 지금 대지진으로 신음하는 아이티에서 선

그의 아버지가 골수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세상을 뜨자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당시 쌍용 김석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이 젊은 나이에 그룹 총수가 돼 세간에서는 이들을 두고 '재계 3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미그룹은 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가 나빠지면서 북미공장이 적자를 냈고 이로 인해 자금이 말라기 시작했는데, 95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특수강 세계 1위라는 꿈도 접어야 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른 나이에 회장이 되고 삼미가 특수



그림 회장에서 선교사가 된 김현철 씨

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장남은 몇 년 전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적이 있었다. 어렵사리 고쳐지만 지난해 여름 재발했다.

김 씨 자신도 지난 2002년 우연히 대장검사를 했다가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한달 반 동안 항암제 투약기구를 몸에 달고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계기였다.

그는 "수술하려 가는데 '암센터'라는 간판이 보이니까 눈물이 핑 돌았다"며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일주일 뒤 수술 부위가 터져버렸다. 몽롱한 와중에서도 '이젠 끝이구나' 싶었다. 그때 신에게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다고.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는 고백했다. 그는 "아들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과거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됐다"며 "남들은 자식 이야기를 장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생각이 다르다. 많은 분이 알고 기도해주면 그만큼 힘이 되는 것 아니겠나.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병에서 회복된 뒤 하와이에 있는 선교사 교육센터에 들어갔다. 석 달 교육을 받고 다시 두 달여 태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는 그 때까지도 선교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당시 집이 있었던 도미니카로 돌아가려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일바인의 한 교회에

서 이왕 갈 거면 선교사 파송을 받으라고 권해 선교사가 됐다.

그는 삼미그룹 회장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를 묻는 질문에 "15년 회장 하면서 행복했던 건 우리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꿔던 잠시뿐이었던 것 같다"며 "나머진 스트레스와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나니 반대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늘 행복하다. 아버님이 이런 삼미그룹을 지키지 못한 게 걸리지만 이제 그마저 내려놔야.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회사 역시 사라진게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선 "아이티에 선교센터와 함께 병원·기술학교를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래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에서 시작했던 건데 제가 소속한 월드그레이스미션과 남가주 늘푸른 선교교회가 합세해 곧 착공할 것"이라며 "이번에 포르토프랭스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당장 먹을 물과 식량도 급하지만 아이티는 길게 봐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구호 말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삼미그룹 전 회장 김현철 씨, 아이티 선교사로 헌신

교센터 건립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선교사로 변신한 그를 지난 14일(현지시간) 지진 참상의 현장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우연히 만났고, 이후 19~20일 산토도밍고에서 다시 만나 그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들었다. 그는 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만 29세라는 이른 나이에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한참 그룹이 잘 나가던 77년 선대 회장이었던

장원에 특수강 공단을 만들어 무기 국산화를 시도했을 때, 그 선두에 섰던 주자였다. 국내 철강회사들이 첨단 특수강에 손사래를 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삼미에게 중책을 맡겼고, 당시 일본 마루베니라는 특수강 회사 공장에서 8개월 연수 경험이 있었던 김 씨는 새 사업체 이사로 발령 받았다.

삼미는 특수강으로 세계에서 그 이름을 날렸다. 89년 캐나다 최고 특수강 회사를 인수하면서 100년 된 미국 자회사도 손에 넣었던 삼미는 명실상부하게 특수강에서 세계적 회사가 됐다. 그러다 경

강으로 세계 1위를 넘볼 때만 해도 신바람이 났다"며 "그러나 95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져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렇게까지 기업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기업을) 떠나기로 했다"고 자신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2년 후 그룹은 부도가 났다. 이후 모든 재산을 은행에 압류 당했던 김 씨는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다 친구의 도움으로 재기하기도 했다. 가족들에게도 시련은 닦쳤다. 말발은 거식증 치료를 받고 있고 사위는 백혈병 진단을 받아 지금도 서울대병원

캘리포니아 UCS대학, 한국총회 신학교와 자매결연



캘리포니아 UCS 대학교 최아브라함 총장이 예장 합동총신 총회장 김중곤 목사와 자매결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가든스위호텔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신 총회측 신학교인 한국총회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두 학교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학점 교류 및 상호 교수 방문 강의, 학술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예장 합동총신 김중곤 총회장은 "양 학교의 만남은 바른 신학과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양 학교가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들이 많이 양성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

기 바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 최아브라함 총장은 "현재 미국 정부가 한인 신학교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인정받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자매결연 소감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은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위에 교회 지도자 양성 및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이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교 (213)388-5992.

(이태근 기자)

은준관 총장, '20세기 기독교교육자'에 선정

북미기독교교육학회 주관

은준관 총장(실천신대)이 북미기독교교육학회 주관 '20세기 기독교교육자'에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0세기 기독교교육자'는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를 망라해 20세기 북미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준 학자 160명을 선정했으며, 주최측은 이들이 저술이나 강의, 기관의 리더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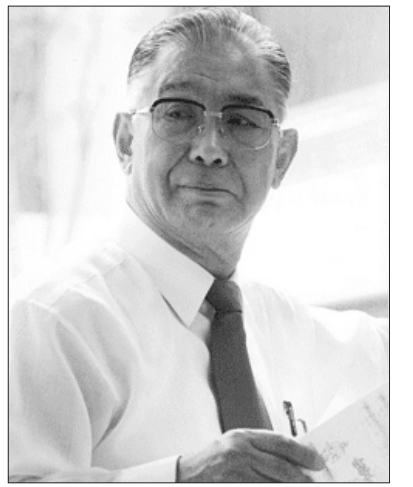
역모델 개발자로서 20세기 기독교교육 역사에 언급돼야 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최측이 인터넷에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은 총장은 교육 신학을 구조화해 신학과 교육학의 통합을 이뤘다고 소개하고, 종교교육학을 신학적 이론으로 정립하고 신학을 실천과 연계시킨 공로를 인정했다. 무엇보다 미국·캐나다 교육학자들과 그들의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반영됐다. 명단에는 이와 함께 은 총장의 약력도 소개됐다.

은 총장은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PSR(Pacific School of Religion)에서 학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Distinguished Alumni 상을 27일 수상한다. 이 상은 지역 사회와 교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낸 동문에게 수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라고 한다.

(이대용 기자)



은준관 총장

LA 남가주 한인 음악가협회 신년 자선음악회 개최

2010년 LA 남가주 한인 음악가협회(회장 김철이) 신년 자선음악회가 24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이혜경의 오르간 연주, 독창, 이화코랄과 LA 필그림 남성 합창단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됐다. 연주곡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Oh Happy Day' 등이다.

출연자는 지휘자 강영욱, 김철이, 백경환, 이영두, 소프라노 김영안, 노

혜숙, 테너 김일두, 바리톤 장상근 등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는 남가주 한인 음악가협회가 주관하고 샘의료복지재단, 살롬장애인교회, 소중환 사람들, 미주 탈북자선교회 등이 협찬했다.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818)970-5106

(지재일 기자)



LA 필그림 남성 합창단이 Oh Happy Day, 필그림 코러스(바그너)를 연주했다.

아이티 돕기 할리우드가 앞장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 산드라 블록,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아이티 돕기에 앞장서면서 세계 각국의 스타들도 속속 온정의 손길을 뻗고 있다.

산드라 블록이 아이티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이 아이티 의료지원에 나선 '국경없는의사회(MSF)'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글린턴 부시 아이티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

고 21일 밝혔다. 디카프리오의 전 애인이자 슈퍼모델인 지젤 번천도 150만 달러를 기부했고 팝스타 사키라는 자신이 설립한 '베어풋(Barefoot)' 자선 재단을 통해 아이티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꽃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는 MTV 등 방송사들과 기획한 모금 생방송 '아이티에 희망을(Hope For Haiti Now)'이라는 프로그램을 22일 밤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이티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안젤리나 졸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이먼 코벨, 셀린 디온. (왼쪽부터)



로버트 박 선교사를 위한 기도문

"내 소원은 단 하나,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는 인생에 다른 아무런 야망이나 개인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 일에 힘써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로버트 박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로버트 박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홀로 들어간 로버트 박 선교사의 강건한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그를 보호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나성순복음교회와 나라 자동차 종합 정비&바디 샵 올림

“WCC 반대” 외쳐온 보수 교단들 뭉쳤다

그간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 총회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왔던 보수 교단들이 하나로 뭉쳐 WCC대체위원회 출범했다. 25일 엠베스터호텔

선종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음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라고 굳게 믿으며 한국교회 보수 교단들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조흔제 등 무당국을 신앙의 행위로 정당화하며 이를 용납하는 그 어떠한 단체나 기관

(WCC) 한국개회가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유지하는 대회를 과장 보도하고, 이를 한국교회 올림픽이라고 선전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정배 목사의 사회로 서기행 목사가 환영사, 윤현주 목사가 ‘우리의 신앙노선을 확증하라’라는 주제로 설교, 석원태 목사 격려사를 전했다. 이들은 올 9월 각 교단 총회에서 WCC에 대처하고 보수신앙 및 보수신학운동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공동회장에 서기행·서정배·박종수·박병식·석원태 목사

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공동회장에 서기행(합동) 서정배(합동) 박종수(고신) 박병식(합신) 석원태(고려) 목사가

은 힘을 합해 공동으로 한국 교회 정체성을 사수하며 한국교회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고단원주의와 혼잡주의는

과의 연합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 극히 소수의 교파(KNCC)가 참여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아프리카를 인류 위한 희망의 땅으로” 교계 중심 한-아프리카교류증진협회 창립



한-아프리카친선교류협회 정삼지 이사장과 유종현 회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한-아프리카교류증진협회(Korea-Africa Exchange Promotion Association, 회장 유종현, 이사장 정삼지)가 창립했다.

한-아프리카교류증진협회는 2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5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사하라 사막 녹색성장사업’(The Great Green Wall) 프로젝트 등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유종현 회장은 “앞으로 저희 협회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대외정책에 따라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며 “이외 다른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시민, 젊은 자원봉사자들, 정부 당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사장 정삼지 목사(제자교회)는 “여러 해 전 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다녀오게 되었을 때 저는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예정된 일정보다 여러 날을 더 체류하며 아프리카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Love for Africa는 시작됐다”며 서방세계의 식민정책과 자원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희생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가 인류를 위한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치, 경제, 개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아프리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협회의 노력을 당부했고, 모하메드 S. E. 아바스 주한 아프리카 외교사절 단장대행은 모든 아프리카 대사들을 대표하며 감사를 표한 뒤 “이 기구는 한-아프리카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밖에도 박진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격려사, 아마두 다보 주한 세네갈 대사의 ‘사하라 사막 녹색성장사업’ 설명, STRONG AFRICA와 서울 오베라당상블의 축하공연 등이 있었다. 동 협회는 지난 12월 22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은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정신으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순수한 시민들이 모인 NGO이다. 약자로 <KOAF-EX>, 애칭으로 <Love for Africa>로 불린다. 핵심사업으로는 ‘사하라 사막 녹색성장사업’, 2010 아프리카 문화축제, 한-아프리카 미래 지도자 양성 캠프(남아공) 등이 있으며 일반 업무로는 아프리카 탐방 및 시장개척 기업인 교류방문 알선, 사랑의 곡식재단 프로젝트 지원, 희망의 쌀 보내기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인권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무려 20만명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20일 북한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

그 외의 모든 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이다.

수용소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열성적인 수감자들에게 각



20일 통일부 앞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북한인권운동가들.

실태조사 결과발표... 수용소는 현재 6곳

자·관리자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지난 2006년 이후 강제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중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활동과 수감자 감시 및 통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감자들은 같은 수감자들 중 선별돼 임명된 작업반장이나 소대장 등의 지시로 작업을 하고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었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최종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했으며, 한국행을 기도했거나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을 제외한 단순 도감자들에게는 처벌이 완화됐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늘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고화소로 보내기도 하고, 형기도 늘어났다. 그러나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헌장상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끔찍한 구금·고문 자행, 강제송환자에 대해 조국을 떠난 것을 반역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고문·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사형·공개처형·불법적 감옥 내 영양실조·노동캠프 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국제인권규범 불이행 사실을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하

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검토할 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인권 정책 및 로드맵과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하고, 다자·양자·국제기구 등 행위자별 대북인권 정책 로드맵과 북한주민·탈북자·국군포로 및 납북자·이산가족 등 주요 이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들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연구 제시할 예정이다. (이대용 기자)

성경 성(性)적 해석 ‘하나되는 기쁨’ 논란 재점화

저자 양승훈 교수와 추천자 정동섭 목사 등 기자회견

성경을 지나치게 성(性)적으로 해석해 논란을 빚은 ‘하나되는 기쁨’의 저자가 양승훈 교수(캐나다밴쿠버세계관대학원 원장)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비판해온 이들 역시 기자회견 내용에 재반박하고 나서, 지난해 가을 출판사측이 더 이상 해당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단락됐던 이 사건은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되는 기쁨’은 아가서의 성경구절들을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 논란이 됐으며, 저자가 ‘회개일’이라는 필명을 사용해 더욱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돼 왔었다.

그는 그러나 “몇몇 분들이 저자의 저술 의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이 책이 결혼 바깥의 성이 아니라 부부간의 성을 다룬다는 점, 실명으로 출판하지 않은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지 이단시비를 염려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추천자인 정동섭 교수 역시 “본인이 저자이며 ‘가정사역교주’ ‘음란 교주’라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나더러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무리(하나되는 기쁨 책을) 읽어봐도 회개할 것이 없더라”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그간 ‘하나되는 기쁨’을 비판해온 이들은 이 책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교회연합신문측은 정동섭 목사에게 “지난해 이 책이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회고한 귀면을 늘어놓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정사역협회 이기범 회장과 양승훈 교수, 정동섭 목사(좌측부터 순서대로).

고 밝혔다. ‘하나되는 기쁨’ 언론보도 백서를 발간한 교회개혁네트워크(대표 박노원 목사)도 “문제를 이단이 제기했던 정통이 제기했다, 사태의 본질은 가정사역의 일탈이 빚어낸 비성경적인 책

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출판되어 보급되었다는 것”이라며 “(하나되는 기쁨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세상의 ‘색욕거리’로 바꾸려는 일련의 작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류재광 기자)

긴급요청

가난의 땅에 불잡혀 있던 그들에게 몰아 닦친
또 다른 재앙!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줍시다.

아이티(Haiti) 지진 긴급구호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육이오-1950

**사망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
3백만 명(전국민의 1/3) 지진 피해 입어**

1월 12일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 카리브 해 아이티(Haiti) 강타 / 10만 명 사망 추정. 전인구의 1/3인 3백만 명 지진 피해 입어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월드비전 아이티 지역

- ▶ 1959년부터 아이티 고아 돌기 시작
- ▶ 1978년 월드비전 아이티 사무소 정식 개설
- ▶ 아이티 전역의 20개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30만 명 아동에게 수혜
- ▶ 52,000명의 아동들, 월드비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음.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구호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주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티에 구호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월드비전 직원들은 비축해 둔 구호 물자를 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초기 타겟으로 1만 가정에 구호 물자와 응급 의약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에 있는 재난 물품 센터에서 18톤의 구호 물자를 항공편에 실어, 15일 오전 아이티 공항으로 공수하여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50년이 넘는 구호 사역 경험과 이미 갖추어진 구호 활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자들을 도울 수 있나?

- ◎ 크레딧 카드를 통한 후원 **1-866-육이오-19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 체크 보내는 곳: TO: World Vision Korea Desk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 ▶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 World Vision
- Memo (For) : Haiti Earthquake

5. 초기 구호 자금으로 구입할 물품

- ▶ 임시 텐트 ▶ 담요 ▶ 식수통 ▶ 식기 용품
- ▶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 키트

“신학까지 공부한 남편이 어떻게 외도를...”

“남편은 신학을 한 사람이고, 시아 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어머니 권사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가 이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더 미웠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한 여성의 말이다. 크리스천 가정이 경험하는 배우자의 외도. 이에 대해 신앙은 과연 어떤 답을 내리고 있는가. 한국목회상담협회(회장 권명수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흔들리는 부부관계’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열었다. 특히 백석상담센터 윤선자 박사는 ‘외도와 신앙자원’을 주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가정이 치유되는 과정을 소개했다.

우선 외도란 무엇인가. 윤 박사에 따르면 외도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긴밀한 정서적 관계 또는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과거 언론 보도(동아일보 2001. 3.7)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65%, 여성의 41%가 외도 경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외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외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100%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 선택되고 쓰임받고 있을지라도 부주의하면 누구라도 외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윤 박사의 견해다.

윤 박사는 “외도는 탈선하는 배우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격적 특성이나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세상에 완벽한 외도의 유혹과 크리스천조차 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외도자

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신앙적 자원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크리스천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을까. 윤 박사는 그 동안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여섯 가지 극복 방법을 소개했다. 윤 박사의 말을 요약했다.

1.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외도 발견 초기에 상처받은 배우자들은 불성실한 배우자에 대해, 그리고 자

려 남편의 외도를 누구와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만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울면서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해놓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다. **2. 기도=외도를 경험한 이들은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깨져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았기에 배신의 아픔과**

신의 치부라고 생각해 구역 식구들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위로와 비언어적인 눈빛이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신우회 사람들이 남편의 외도를 거론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등산에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4. 성경말씀의 내재화=사랑과 성실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말씀을 근거로 내재화했을 때 비로소 남편의 외도가 주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때로는 적극적인 대처까지도 해나갈 수 있었다. **5. 크리스천 생활 양식=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후 엄청난 충격과 혼돈 속에서도 이들이 이혼으로 치닫지 않고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주례말씀과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 앞에서 한 결혼식, 그리고 성혼서약이었다. 남편의 외도가 끝나고, 이혼하지 않은 부**

부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했던 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었다. 이들은 새벽기도는 물론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더욱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6. 낙담에 대한 고백=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외도의 유혹에 대해서도 그리고 외도의 결과로 남겨진 상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한 상담자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잊게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윤 박사는 “크리스천 가정들이 외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적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난다”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한국목회상담협회 ‘흔들리는 부부관계’ 주제 공개강좌



한국목회상담협회는 23일 연동교회에서 ‘흔들리는 부부관계’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기 자신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항의하는 듯한 강한 분노를 느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충실히 했으며 그 동안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체계를 깨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비록 화를 내고 있지만 오히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한 상담자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외도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고 고백했다. **3. 신앙공동체=이들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목사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음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의 외도를 자**

‘더는 진화 불가능한 진화론’ 교과서에서 삭제 추진

진화론실상연구회-창조과학회 뜻 모아 교진추 출범



교진추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기환 회장이다.

‘교과서에서의 진화론 삭제’를 목표로 하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가 23일 오후 서울 도림동 도림교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교진추는 지난 2008년 시작된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회장 김기환 장로)와 한국창조과학회(회장 이용상 교수) 내 교과서위원회 일부가 교과서에서의 진화론 삭제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통합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교진추는 초·중·고 과학 교과서의 진화론 관련내용을 중 명백한 오류를 삭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은 논란 이유를 기술하게 하며, 진화론은 ‘법칙’이 아닌 ‘가설’임을 전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진화가 거짓임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이의 학문적인 체계를 확립해 학계에 널리 인식시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 내 진화론 시정교육을 한국교회 차원에서 일으키고, 미션스쿨과 기독교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교회 차원에서 교과서 개정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기환 회장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맹신도 취급 받는 실정”

김기환 회장은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가설’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해 오고 있는 현실 때문에 창조과학회와 타협하는 거짓 이론들이 난립하며, 성경 기록을 사실로 믿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맹신도 취급을 받는 실정”이라며 “문제의 뿌리가 되는 진화론 교육을 무너뜨리기 위해 학술적 근거를 기초해 교과서 내에서 진화론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일방적인 진화론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거룩한 분노를 품은 다윗처럼 사단의 가장 견고한 진화론 교과서 개정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설명했다.”

해 함께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1년에 50만명의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학교를 나서고 있고, 학생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진화론 때문에 고민한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해악은 폭이 넓다. 먼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진화론적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제공, 인간을 동물로 격하시키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쾌락 지상주의·생명경시 현상 등 사회 병리현상을 만연시킨 ‘악의 원천’이다.

기독교에 끼친 해악은 더 막대하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생물이 생겨났다는 학문체계를 확립, 창조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신앙체계를 파괴했으며, 성경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게 만들었다. 또 기독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나아가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기독교 내에서도 신앙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출범식에 앞서 이용상 한국창조과학회장이 ‘교과서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용상 회장은 진화론 교과서의 문제점을 생물학·지질학·과학교육학·사회학적 문제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과학을 창조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립학교의 경우 무작정 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진화론의 오류들을 분명히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삼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는 ‘교과서 이야기’에 대해 특강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이광원 자문위원 사회로 권재호 목사(도성교회)가 기도, 이성진 목사(생명생교회)가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자(창 1:1)’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후 백현주 총무가 교진추 조직 및 활동방향 등을 소개했고, 김기환 회장이 설립 취지와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대용 기자)

이스라엘 목회자들 방한... “〈회복〉보며 눈물, 감사”

한국이스라엘기도성회 참여해 한국교회 기도 요청

지난 14일 명동 시너스극장에서 개최한 이스라엘 메시아니즘 현실을 다룬 기독교영화 **〈회복〉**에 출연한 목회자들이 제1회 한국이스라엘기도성회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회복〉**에 출연한 이스라엘 메시아니즘 목회자인 야콥 담카니, 아비 미즈라이, 메노 칼리

서, 데이빗 오르티즈, 릭 라이딩 목사 등이 참석해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텔아비브에서 ‘아도나이 로이’라는 유대인 공동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아비 미즈라이 목사는 “영화 **〈회복〉**을 관람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한편으로 감사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처음인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현지 목회자들과 컨퍼런스 관계자들. (왼쪽부터) 릭 라이딩 목사, 온누리교회 송만섭 장로, 야콥 담카니 목사, 김충철 감독, 아비 미즈라이 목사, 통역 윤순현 목사, 메노 칼리서 목사.

것으로 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깨우는 영

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월드비전 직원 채용 공고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 동량의 고아와 미망인을 도우면서 태어나 현재는 전 세계 1백 여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는 월드비전, 월드비전US 코리아 데스크에서 서부 지역 디렉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코리아데스크 서부지역 디렉터
- 모집인원: 1명
- 모집기간: 2010년 2월 20일까지 서류접수
- 필수자격조건:
 1. 신실한 크리스천
 2.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3. 미국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 구사자
- 우대사항:
 1. 기독교 NGO 및 연합회 활동 유경험자
 2. NGO 마케팅 실무 경험자
-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 조직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 능력
 2.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 (한/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온라인 시스템 포함)
 3.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
 4.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5. 타주 출장 가능한 자

제출서류	채용절차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한/영 각 1통) (관련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내용 포함)	1. 1차 서류접수 jikim@worldvision.org
2. 담임 목사님 추천서 3통(제출된 서류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면접, 월드비전 US 웹 사이트(worldvision.org) 은 라인 접수
	3. 개별 면접

World Vision |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 및 실습)를 마치고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2월 1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와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 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글로벌 리더십 서밋 성황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1월 23일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 열렸다.

월로우크리교회와 후원으로 진행된 Global Leadership Summit(이하 GLS)이 1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Lead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그동안 위성방송으로 중계됐던 GLS는 이번에 DVD에 기초한 비디오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월로우크리교회에서 참석한 카렌 채(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Resources) 디렉터는 "위성방송을 할 때 동시통역(한국어)을 하지만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기에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 90% 이상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DVD 강의를 마련했다. 한국에서는 더빙을 해서 한국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강의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며 이번에는 '미주'라는 특성 때문에 영어강의와 한국어 자막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 디렉터는 "위성중계는 GLS가 열리는 시카고 지역의 시간과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찬양이나 강의 후 소그룹 모임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DVD 강의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GLS에서는 총 4번의 강의를 진행했다. 빌 하이벨스(월로우크리교회 담임) 목사가 '거룩한 불만족(1강)'과 '세상의 소망(4강)'에 대해서 강의하고, 존 오트버그(멘로파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지도자의 가장 큰 두려움(2강)'에 대해서, 웨인 코데이로(뉴호프교회 담임) 목사가 '죽은 지도자의 믿음(3강)'에 대해서 강의했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지도자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도전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오는 도전"이라며 이를 "그림자 사명"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존 목사가 말하는 '그림자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빛나기 버린 사명'을 말한다. 존 목사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쉽게 설명했다. 존 목사는 "개인적으로 혹은 자신이 속한 교회나 단체가 그림자 사명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그림자 사명에 빠져있던 에스더를 도전해 그녀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한 모르드개 같은 사람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는 자신의 목회 탐진 경험을 소개하며 "무엇이 나를 충전시키고 무엇이 나를 진이 빠지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삶의 균형을 이해하고 사역과 가족의 균형을 잘 이룰 것, 씬으로 이끄는 방법, (쌓인 것을 풀 수 있는) 피로점을 발견할 것, 말씀을 매일 묵상할 것"을 조언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대학교때 빌지키언 교수가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목회를 결심하게 됐다"며 "1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교회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창수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더 많은 이들에게 오픈하고 싶었지만 장소 문제로 인해 500명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센터빌에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면 올 해 8월쯤에는 훨씬 많은 이들이 GL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 서부에서는 2월 13일과 14일, 남가주사람의교회에서 DVD에 기초한 GLS가 총 7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요한 기자)

9.11 테러 결정적 계기 돼 이슬람권 선교사로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코틀랜드타운 개혁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던 더글라스 레오나르드(Douglas Leonard) 목사는 오는 3월 이슬람 국가인 오만으로 선교사로 나간다.

더글라스 목사가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9.11 테러 사건이었다. 당시 뉴욕 시내에 위치한 마블 칼리지에이트 교회(담임 아더

했다. 9.11 테러는 더글라스 목사에게 큰 충격이 됐고, 이슬람 국가 오만을 선교지로 택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오만은 국민의 99%가 이슬람교이며, 국교가 이슬람교인 나라이지만 다른 아랍 국가와는 달리 종교에 대해 유연해 다른 종교 활동이 허락되며, 주요 도시에는 교회 등이 있어 예배도 허용된다. 또한 더글라스 목사가 속한 RCA 교단

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 사회를 섬기며 교육하는 사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욕심 없이 헌신하겠다고 더글라스 목사는 결단했다.

현재 더글라스 목사는 개교회를 직접 찾아가 선교 계획을 소개하며 현지 사역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23개 교회의 후원을 약속받았다.



더글라스 레오나르드 목사. ©코틀랜드타운개혁교회

RCA 더글라스 레오나르드 목사, 오만 선교사 돼

칼리안드로 목사) 부목사로 있었던 더글라스 목사는 이슬람 과격단체 알카에다의 테러가 빛을 비추는 눈앞에서 목격했다. 세계무역센터는 무너져 화염에 휩싸였고, 마블 칼리지에이트 교회는 테러로 인해 많은 성도를 잃었다.

더글라스 목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생긴 'Grief Counseling Group'에 참여해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무엇인지, 이슬람이 무엇인지 궁금

은 160년간 오만과 관계를 맺어오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냈다.

더글라스 목사의 전략도 'Peaceful Strategy'(IRENIC)이다. 전도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며 믿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권에서 쫓겨난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더글라스 목사는 전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며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겸손히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략이다. 더글라스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가

현지에서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고, 유급직원을 구해야 해서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10만 불 가량으로 예상했다.

더글라스 목사가 소속된 RCA교단은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이들에 의해 1628년 뉴욕 뉴암스테르담에서 50명이 모여서 첫 교회를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돼 현재 미국 내 970여개의 교회와 1800여만 명의 목사, 20만 명의 교인을 낳았다. 특별히 한인 목회자들이 양적으로 영적으로 급성장해가는 미국의 주류 교단 중에서 특히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단이다.

또한 더글라스 목사 개인적으로는 340년 전 태반개혁장로교회(Tappan Reformed Church)를 개척한 할아버지에 이어 은퇴한 뉴욕 대회(New York Synod)의 지역교회 목회자이자, 업스테이트 뉴욕 오렌지 타운의 개혁장로교회의 목회자 아버지를 두었다. 이렇듯 작은 씨가 심기어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참대한 역사가 오만 땅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오상아 기자)

뉴욕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 일터에서 복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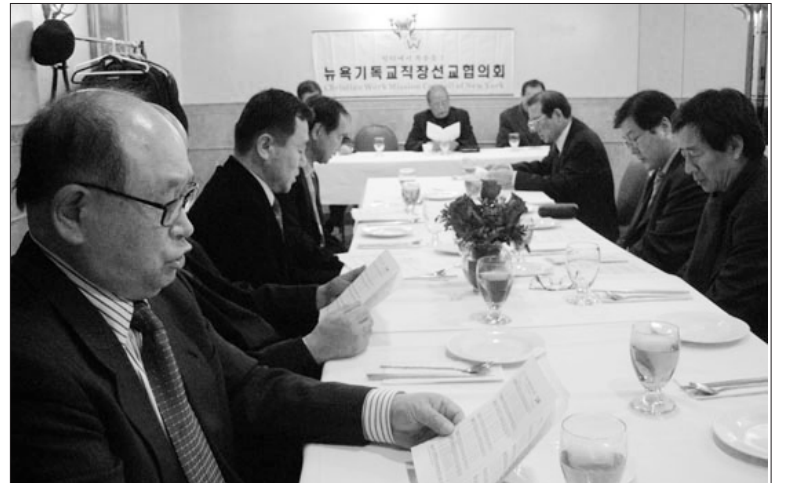
장철우 목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제로 신년감사예배

뉴욕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회장 손석완 장로)는 신년감사예배를 25일 저녁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명종 교수의 인도로, 박용기 장로(KCTV 사장)가 기도, 이상훈 권사가 성경봉독, 장철우 목사(뉴욕한인교회 담임)가 말씀, 통성

기도, 손석완 장로가 광고, 신현택 목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가 기도했다.

이날 장철우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9)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1000년대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타임지는 바울 사도를 선정했고, 100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정기스칸을 선정했다. 2000년부터 3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 이겠는가?"고 질문을 던지며 "빨리빨리"가 조급한 성질을 나타내지만 빛과 같이 빠른 민족, 한국인이 가장 영



뉴욕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는 신년감사예배를 2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진행했다.

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장 목사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각자의 직장

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직원들을 올 1년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권면했다. (오상아 기자)

7명의 목회자 중심으로 멘토링 시스템 구축

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 개막

KWMC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위원장 고인호 목사)가 협력하는 EM/CAARL Pastor's Conference(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가 1월 25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시작해 차세대 목회자들간에 네트워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복음

(Our History and Our Gospel)"이며, 주강사로 Dr. Min Church(Covenant Fellowship Church), Dr. Jeff Jue(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Dr. Paul Lim(Divinity School), Dr. Julius Kim(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Dr. Paul D. Kim (Renewal), Dr. Steve Park(Jubilee Presbyterian Church), Rev. Stephen Ro(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등이 나섰다.

25일 저녁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인호 목사는 "10년 전 2세 목회

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위해 얼마전 소천하신 드와이트 린튼 목사를 찾아갔었다. 그 분이 기도해주시면서 한 장로님을 소개시켜주셨는데 그 분이 3,000불을 지원해주셨다. 그 후 이원상 목사님을 찾아가 비전을 나누었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불티모어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시켜주셨다. 그 분이 2,000불을 지원해주셔서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컨퍼런스의 역사부터 설명했다.

또한 고 목사는 "린튼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블랙마운틴에 가게

됐는데 1900년대 초 한국에 선교사가 갔던 분들의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80세가 넘는 백인들이 내 주위에서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여기 모인 2세 목회자들 중에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한 외국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인호 목사는 "이번 11회 컨퍼런스는 매우 특별하다"며 "이번에 주강사로 나선 7명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2세 목회자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요한 기자)

센라파엘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센라파엘 한인장로교회는 1983년 부터 P.C.U.S.A 소속 교회로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합니다.

- 자격:** 1) PCUSA교단소속 혹은 PCUSA교단 Transfer가 법적으로 가능한분. 2) 정규신학대학 M.Div 이상 학위 소지한분. 3) 담임또는 부목사로서 4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분. 4)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능통하신분. 5)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제출서류:** 1) 이력서(한글과 영문)- www.pcusa.org/clc에서 P.I.F forms 2) 최종학력 증명서 3) 신앙 고백 및 목회철학 1통(한글과영문) 4) 목회비전 1통 5) 최근 6개월내 설교 CD 2부. 6) 본인 및 가족 소개서 1통-가족사진 1매(6개월이내) 7) 추천서 4통(4통중 3통은 목회자로 한정하며, 추천자 밀봉날인 필수 혹은 추천인이 직접 메일로 보내셔도됩니다. 추천인 4명의 Contact Info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먼저 서류를 접수하신후에, 추천서는 추후에 보내셔도 됩니다.(기일안예)

기타: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선임된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김일 장로(415-491-1932)

제출서류 마감및 주소:

- 1. 마감일 없음, 단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검토를 시작하여 담임 목사를 선정할것임.
- 2.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pcsanrafael@yahoo.com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지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질적 양적 성장하려면 “서로 많이 나누어야”

〈SBC 한인목회자들 코칭 훈련으로 성장에 출사표〉



시카고 지역 SBC 한인 목회자들이 목회 코칭 훈련을 시작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렵게 목회의 길을 결심한 ‘하나님의 종’은 목회에 투입되기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의 신학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한다. 그러나 그 기간 공부한 것과 노력한 모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소명에 넘치던 목회자를 낙담하고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남침례회(SBC) 소속 한인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고 동시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코칭 훈련에 돌입한다.

미주 일리노이 침례교회의 회와 CMB(Chicago Metropolitan Baptist Association), 일리노이주총회가 목회자들의 건강한 목회를 돕기 위해 이번에도

임하는 것은 최근 남침례회 국내선교부에서 개발한 “Thrive”라는 코칭 훈련이다. 목회자들이 그룹을 지어 목회의 비전에 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목회 지도력과 전략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질 높은 목회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시카고 한인들이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타민족 교회에서도 6개 그룹이 도입했다.

21일 목요일 시카고 CMBA 센터에서 열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석정문 목사(일리노이주총회 교회개척전략)는 “코칭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목회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

하심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설교, 행정 등 목회의 기본적 내용부터 분장, 갈등까지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목회자들이 직접, 간접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목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이 훈련은 각 목회자들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목회전략팀 평신도들이 함께해 성과를 극대화 한다.

꼭 코칭이 필요할까? 조지벤티스트 컨벤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90%가 신학교육은 사역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85%가 리더십의 부족으로 인

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피곤함을 느낀다. 70%가 친구와 멘토가 없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 70%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말씀을 본다 고 응답했다. 석 목사는 “Thrive는 코칭을 통해 위의 문제들에 충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년동안 총 10번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한달에 한번씩 만난 목회자들은 책을 읽고 소감과 비전을 나누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컨설팅도 받는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도 재점검 하며 새로운 전략을 도입, 시행해 본다.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노재영 목사(Ph.D., CMBA 리더십 및 선교연구원)는 “목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서로를 돌아, 신뢰할만한 사람과의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를 혼자서 느끼고 배우는 것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목회자들 간의 깊이 있는 끈끈한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얻고 전략과 비전을 찾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목사는 자신의 이민목회 20년의 경험을 예로 들며 “많은 교회들이 분장과 어려움에 처하고 목회자는 이 가운데 피폐해질대로 피폐해 진다”면서 “이번 코칭 훈련을 통해 Thrive라는 이름대로 우리의 목회가 매일 매일 겨우 Survive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번성,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삼버그 복음화 위해 한 자리에 서다

김광섭, 광호경, 김태준 목사

좁고 좁은 “내 교회”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분명한 경쟁자이지만 넓고 넓은 “주님의 교회”라는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영적 지평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반드시 동역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웃 교회다.

그러나 한인교회 간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수평이동, 적백한 불신자 전도 환경 등은 바로 옆에서 사역하는 이웃 교회가 함께 기도할 아군보다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게다가 그 교회가 선전까지 건축하기 시작한다면?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가 지난 8월 교육관 건축을 시작한 이후 현재 벽면이 세워졌고 지붕 작업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살렘교회 교육관은 오는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고등부 예배실을 비롯한 각종 교실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공간으

로도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살렘교회는 이 교육관과 함께 교회 부설 삼버그한국학교를 본격화 해 한국문화 전수에도 매진한다. 주변 교회들이 긴장할만하다.

그런데 살렘교회 교육관 건축 현장에 이 지역 한인 목회자인 삼버그침례교회 김광섭 목사와 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 광호경 목사가 찾아 왔다. 직접 현장을 둘러 보며 기도해 주고 삼버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싸울 살렘교회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였다. 살렘교회에서 삼버그침례교회는 1마일, 나사렛성결교회는 3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각각 다른 교단인 UMC, SBC, 나사렛성결교에 속한 김태준, 김광섭, 광호경 목사는 평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적이 별로 없지만 오로지 삼버그 복음화의 동지라는 한 공통분모 위에서 이번엔 만나게 됐다.

특히 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의 경우는 오는 4월부터 본당 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준 목사와 광호경 목사는 건축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됐다.

〈김준형 기자〉



삼버그침례교회 김광섭 목사와 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 광호경 목사가 살렘교회 건축 현장에 왔다.

군선교연합회 미주총회 애틀랜타서 열린다

애틀랜타 지회 25일 정기총회 갖고 준비위원장 추대

지미주 전지역과 한국에서 군선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군선교연합회 미주총회가 오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애틀랜타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개최된다. 일정은 18일 총회, 19일부터 21일까지 이종윤 목사(현 서울교회) 초청 부흥회다.

군선교연합회 애틀랜타지회(지회장 장석민 목사)는 25일(월) 제 2차 정기총회를 안디옥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고, 준비위원장으로 김성철 목사(화광침례교회)를 추대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장석민 목사(중앙성결교회)는 김성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단합회 및 중보기도회로 3월에 있을 총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김성철 목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력해 많은 열매를 맺는 총회가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두섭 목사(미주군중선교사령부, 은총의마음교회)는 “항금어장이라 불리는 군대는 한국에서 한 해 60만 군군장병 중 20만 명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해마다 새로운 군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전하면서 “최근 불리비에서 군목제도 요청이 들어왔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러시아가 군목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돼 간다. 이번 총회가 전세계 군목제도 도입을 위한 ‘비전 2020’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지역 군선교회 활성화와 비전 2020(군중선교회 세계화)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할 이번 총회에는 1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며, 한국에서도 10여명이 참석한다.

군선교연합회 애틀랜타 지회는 2년 전 창립됐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지회장 장석민 목사가 3월에 있을 미주총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 목회자들이 후원, 활동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회는 한국군선교연합회 특과원으로 11년 간 스넬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엄두섭 목사의 사역과 한국군선교를 돕고 있다. 엄두섭 목사(미주군중선교사령부, 은총의마음교회)는 15세 대상 미군(ROTC) 홍보, 군복 혹은 군중 입대 홍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 한인장병을 위한 기도회 및 위문활동, 유학생 연수 등을 감당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KCCC 청년들 연합예배 드리며 감동과 은혜 선사

젊은 교회 글렌브룩에 더 젊은이들이 찾아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 지난 24일 글렌브룩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KCCC 대학생 청년들은 예배 중 찬양 인도, 연극, 간증, 특별찬양, 바다 워십 등을 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성도들은 아멘과 박수로 크게 격려했다.

KCCC는 매년 미국으로 1년간 대학생 및 청년들을 파송해 단기선교 및 영어 연수 훈련을 받고 선교의 비전을 키우도록 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미국 대학생들 전도하는 단기선교 사역과 현지 한인교회를 방문해 찬양, 스킷 드라마, 워십 등으로 섬기는 사역도 포함돼 있다. 시카고 지역의 경우는 재작년에 글렌브룩교회, 작년에 참길장로교회를 방문한 바 있다.

글렌브룩교회는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비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23일 시카고에 도착한 15명 청년들은 다섯 가정에 나뉘

어 숙식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격려받는 친교의 시간을 보냈고 25일에는 백영민 담임 목사와 오랜 시간 면담하며 비전을 다졌다. 백 목사는 “젊은 나이에 선교사의 꿈을 품고 훈련 받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함께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비전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이었던 것 같다. 둘다 모두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백영민 담임목사와 함께 한 KCCC 청년 선교사들

한국 글로벌 비전기독교학교 사역자 청빙

한국의 음성과 문명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기독교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에서는 청소년 선교교육사역에 함께할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1. 사역분야

- 1) 과목교사(영어로 수업가능한분으로서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수학, 과학, 역사, 사회 분야
- 2) 생활관 부부 지도교사(간단한영어회화 가능자, 선교사, 목회자, 교회중직자 출신 환영, 초대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부부사역자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고 1년이상 사역이 가능한분
 - 음주흡연을 하지않고 경건회 및 신앙지도 가능한분
 - 학생 기숙사에서 별도의 생활지도교사 숙소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가능 한분

2. 처우

- 1) 교사: 숙소 및 1일 점심저녁 제공, 왕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 지원, 연봉 \$20,000.00 에서 \$25,000.00 지급, 주5일제, 방학휴가
- 2) 생활관부부지도교사: 생활관내 부부교사 거주, 1일 3식제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지원, 연봉\$10,000.00 에서 \$15,000.00 지급, 주5일 근무, 년간 6주휴가.
- 3) 자원봉사 사역자에게는 : 항공권, 숙소, 1일3식, 및 매월 \$500.00의 활동비 지급, 자원봉사자로 지원 하시는분 우선 선발 (최소 6개월 사역조건)

3.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가족 및 신앙간증 포함)
- 이력서에 소개된 학력 경력 증명자료
- 건강 진단서
- 여권사본

4. 연락처

- GEMGVCs 미주본부장: 1-951-704-6087
- 한국인사과장 이재운: 82-10-6625-3043
- E-mail: gemgvc@naver.com
- 홈페이지: www.gemgem.org

5. 모집기한

- 1) 2010 봄학기 시작사역자 : 2010 2월 10일까지 한국학교 부임 가능하도록 1월 31일까지 신청
- 2) 2010 가을학기 시작사역자 : 2010 8월 1일까지 한국 학교 부임가능하도록 6월 30일까지 신청 (*조기에 마감할수도 있음)

나의 실패와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 시애틀 형제교회 이용규 선교사 초청 신년 말씀 사경회



이용규 선교사@시애틀 형제교회

“무엇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를 졸업하고 소위 엘리 트라고 불릴만한 이용규 선교사의 고백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가 아닌 주어진 환경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뤘던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의 ‘하나님 알아가기’ 신년 말씀 사경회 집회가 지난 22일부터 열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고요하면서도 차분하게 집회를 인도하는 이 선교사의 목소리에는 내려놓은 자의 편안함이 느껴졌고, 먼저 고통과 성숙을 경험한 자의 위리가 묻어있었다. 이 선교사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곳곳의 성도들은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

그는 집회 첫날 성도들을 향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 선교사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었다”며 “우리에게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사건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해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었듯 우리의 실패 또한 사명과 연결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단점, 고통스러운 부분을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키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상처 받은 치유자로 예로 들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가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듯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로자, 구원자가 되신다”며 “지금 나에게 있는 아픔이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실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결과를 성취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에 대해 묻지 않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대형교회로 성장한 뉴비전교회, 29주년 창립예배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는 2월 7일 오후 4시에 창립 2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드린다. 임직예배에서 원로안수집사, 권사, 명예집사 및 명예권사를 세울 예정이다. 또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펠로우 집교회 감원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신년부흥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5년전 진재혁 목사 부임 이후로 북가주 가장 큰 새 성전으로 이동해 대형교회로 기반을 다져온 뉴비전교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했다. 이제는 2,300여명 출석교인의 북가주 대형교회로, 미

일환으로 교회가 위치한 밀피타스 시에 새 캠프를 통해 초등, 중고등학생을 위한 튜터리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담임목사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코칭, 리더십,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세 영어권 신학생을 위한 브리지 프로그램으로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Korean Church (한인 교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전략)을 개최, 골든케이 트신학교 장학 프로그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인환 자들에게 매주 식사배달하는 만나

사역 확장, 60세 이상 노인위한 실버대학확장, 지역한인을 위한 열린학교 운영, 아이티 지원 참사위헌 특별헌금모금 운동 등을 하고있다.

2011년도에 창립 30년을 맞이하는 뉴비전교회는 이제 미래의 30년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로서, 또한 실리관벨리와 북가주지역의 영적지표가 되는 교회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의: 뉴비전교회(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임형진 기자)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헤드럴웨이 교회연합회 신년 하례예배

연합과 전도, 지역의 성시화 위해 힘쓸 것

헤드럴웨이 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회장 원호 목사)는 지난 25일 헤드럴웨이 제1



헤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 신년하례예배

장로교회(담임 구자경 목사)에서 신년 하례예배를 드리고 연합과 전도, 지역의 성

시화를 위해 다짐했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서 목회자 연합 노

방 전도와 청소년 연합 찬양제를 통해 불신자 전도와 2세 양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설교를 전한 원호 목사는 이사가 43장 18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1월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연합된 모습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 지역의 성시화를 이루자”고 전했다. 예배 후 합심기도 시간에는 지역의 성시화와 전도, 각 교회의 성장과 성숙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모임 후에는 율농어를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맘선교회 아이티 긴급 의료구호팀 모집

아이티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맘선교회는 긴급구호팀을 구성, 지난 20일 맘선교회 대표 최순자 박사(소아과 의사)를 비롯, 11명이 1차 의료봉사팀을 파견했다. 또한 제2차 의료봉사팀을 25일 파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맘선교회 이지영 북가주 지부장은 “아이티 현장에서는 식수 및 구호음식을 약탈하거나 아이들을 강제 납치해 장기를 빼가는 등 극단적인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미주 한인들의 긴급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지영 지부장은 맘선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고 있으니 각 교회에서 광고로 성도들에게 알리거나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아래는 맘선교회 긴급구호팀 모집 내용 Team 1: Jan. 20 (Wed) - Jan. 27 (Wed) Team 2: Jan. 25 (Mon) - Feb. 2 (Tue) Team 3: Jan. 31 (Sun) - Feb. 8 (Mon) Team 4: Feb. 6 (Sat) - Feb. 14 (Sun) Team 5: To be determined later *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약을 꼭 갖고 가십시오. REI (http://www.rei.com/)에서 Permethrin (sawyer brand) 6 oz 을 \$9에,

11 oz 를 \$11에, 24 oz 를 \$15.5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von 에서 나온 “Skin so Soft” (cream or spray form) 제품도 좋습니다. * sleeping bag을 가지고 오십시오. TICKETING • 도착지를 도미니카공화국(D.R.) 수도, Santo Domingo(공항 코드:SDQ)로 미국 왕복 비행기 표를 구입하십시오. 도착시간을 시작 날짜 (예: Team3는 1월31일) 오후 5시-7시경으로 잡아서 가능하면 공하에 마중 나오는 선교사

등 일정표를 모아서 마이아미의 장용환 권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분이 D.R. 도착 이후 Haiti입국, 다시 D.R.에서 출국할 때까지의 모든 그곳에서의 여정을 arrange 합니다. • 남부 지역에서 ticketing 하시는 분은 Blue-jet으로 Fort Lauderdale, FL - Santo Domingo, SDQ로 비행기 표를 사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Lawrence Travel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service charge 를 \$10 만 더해져서 가장 적은

돈 있는 경우도 있음) Δ Passport의 expire date는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mpty page가 적어도 3장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② 질병 예방 (예방주사): 각 날마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예방주사가 다르니 웹사이트(www.DCD.gov/travel)에서 알아본 후, 조치하십시오. Haiti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세계 제1위라고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

Menactra) 예방주사는 CDC에서 권하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맞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전은 menactra, 55세 이후는 menomune을 맞도록 하세요. 뇌막염 주사(Menomune or menactra)는 Health department나 아시는 의사에게 살비로 맞게 해 달라고 요청 해 보아 맞으십시오. Δ 소아마비 (polio)도 추가접종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말라리아 예방약 : Mefloquin이나 Malarone을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하십시오. Mefloquin 250mg을 여행 떠나기 1주일 전에 1알을 복용하고 그 후 1주일마다 1알씩 계속 4주일을 복용합니다. Malarone은 여행 1일전부터 하루 1알씩 시작하여 선교지에서 매일 복용하고 귀국 후에도 하루 1알씩 1주간 복용합니다. ③ A형 간염 예방주사 (Hep. A):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들이나 미국사람은 A형 간염 예방주사 (Hep. A)를 맞아야 합니다. Dr’s office나 Health dept에서 맞으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A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되어 있으므로 A형 간염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4) 예방 주사 요약 A) 한국인 1세: 스피루릭으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Typhoid fever - 예방주사나 경구 복용 Δ안전하게 접종/추가접종을 권하는 것: ① Tetanus(파상풍) or DT, ②Polio, ③Menactron or Menomune(뇌수막염 백신) B) 한국인 2세나 미국인: 스피루릭인 예방조치(3가지):①Typhoid fever, ②Hepatitis A, ③말라리아 경구약 Δ안전하게 추가 접종을 권하는 것: ①Tetanus, ②Menomune, ③추가접종polio, ④ 독감주사, ⑤60세 이상은 폐렴예방주사 5) 비용절약: * 미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예방주사 제조하는 제약회사에 Business account 를 open 하고 예방 주사약을 살비로 구입 할 수도 있습니다. ① Sun Sook Paik “House of Love” Orphanage (백신숙 선교사 Tabarre 36, Impasse, Tel: 509-3452-2681 ② Missionary Byung Joon Park (박병준 선교사) (맘선교회 제공) Tel: 630-580-5074 / www.messengersofmercy.org (김브라이언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 렌탈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김영길 칼럼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밀알선교단 미주대회”가 미주 밀알선교단 주최로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브라질까지 13개 밀알선교단 단장들과 간사들과 이사장들, 그리고 한국과 구라파에서 오신 분들까지 약 1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30년 후의 밀알선교단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깊은 모임이었습니다.

밀알선교단은 1979년에 시각장애인인이었던 이재서 신학생(지금도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입니다.)이 조출하게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그 때 그 모임을 함께 시작했던 신학생들이 지금도 이 선교단체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평균 해수가 25년이라고 하는데 30주년을 맞는 밀알선교단

를 90명의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행사도 겸하였습니다. 9년째 계속하고 있는 이 밀알장학금 수여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회 중에 장애인 신학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설교하시는 장승익 박사님도 세미나의 발제강연을 위해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저도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들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밀알선교단의 특색은 반기보다는

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라는 계몽을 얻게 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알선교단은 또한 서로 봉사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밀알선교단의 신앙정신과 운영방식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밀알 식구가 되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장

밀알선교단 미주대회를 마치고

은 이제 막 사춘기를 벗어난 느낌입니다. 밀알선교단은 현재 24개국에 69여 개 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단은 이사회가 구성되고 단장 이하 간사들을 유급으로 두고 있는 그 지역의 밀알선교단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가주 밀알선교단을 중심으로 모금한 171,900 달러

주려는데 있습니다. 밀알선교단의 3대 목표는 “전도, 봉사, 계몽”입니다. 밀알선교단은 고집스럽게도 기독교의 ‘전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

애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항상 장애인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교회의 눈에도 장애인들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밀알선교단 미주대회는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남겨주었습니다.

서창권 칼럼



서창권 목사
시카고한인교회

저는 2008년도에 선교를 위해 아이티에 다녀온 이후 1년 뒤인 지난 해 11월 아이티에 두 번째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 채 두 달이 안되어 이번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연유

설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하지 않아 거리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찰이 있지만 전혀 역할을 못해서 UN군이 온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세계각국에서 구호물자가 도착하였지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티가 ‘사탄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불잡혀온 아이티사람들은 1804년 프랑스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이들은 1791년 사탄의 힘을 빌어 독립하기 위해 사탄에게 나라를 바쳤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도 사탄을 숭배하는 부두교(Voodoo)를 따르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대통령이 나라를 사탄에게 바친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1월의 방문을 통

재난의 옷을 입은 축복

〈 '진흙 쿠키의 나라'로 불리우는 아이티! 〉

로 세계 아이티 대지진은 전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 붕괴된 공항 새청사를 비롯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전경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과자로 만드는 현장과 그 과자를 먹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한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만 지난 현재 사망자 20만명, 이재민 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재앙입니다. 지진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지진을 ‘재난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방문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티는 ‘나라가 아니다’였습니다. 정부가 있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은 고사하고 수도(首都)조차 상하수도 시

해 아이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이티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영적이며 음악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매우 순수하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조국이 변화되기를 갈구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아이티사람들의 오랜 절규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전세계가 동시에 지금처럼 아이티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하나가 되어 지금처럼 아이티를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아이티사람들을 가난과 질병, 부정부패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지진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아이티 지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칼럼



정인수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인간의 마음에는 옛 생각들이 철옹성처럼 진을 치고 그 거점을 강력히 내리고 있다. 세상의 거리에서 마구 주어들은 경험이나 정보가 여과 없이 축적된 그런 혼란한 사고들이 혼재해 있기도 하다. 세속적이며 선정적인 미디어가 뿜어내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질서하게 밀려오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여과 의식이 없이 대하고 그런 것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라고 좇대 없이 유혹을 받기도 한다.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다. 광고, 대중문화,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잡은 세상의 가치관도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진리와 어긋

격에 노출되는 치열한 경쟁태이기도 하다. 인간의 타락으로 그 지성은 심히 어두워 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러한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총체적으로 모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낼 수 없다. 그것은

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마음은 혼란하고 복잡하고 뒤엉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비추기 시작하며 은혜의 빛이 임한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 타락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새롭고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간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새로운 생각, 위대한 생각, 참된 생각이 임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새 생각을 품으며 삽시다

난 인생관이 주입되기도 한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 중에는 동성연애자며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에 의해 우리 자녀들이 오염되기도 한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내 사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

죄와 악의 권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추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길은 우리의 사고를 성서적이며 신앙적 세계관

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 신선한 생각이 깃들기 시작한다.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온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한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현실이 결코 바뀌는 법이 없다.

김만식 칼럼



김만식 목사
시애틀을늘푸른교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해주려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한다. 고민에 귀 기울이며 사랑어린

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를 축복해주는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질문으로 다가야 한다. 진정한 축복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 Bill Bright 박사는 ‘사역리’에서 첫 번째로 “하나

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를 축복해주는 것이다.

전도할 때 종종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로 겁을 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 얻게 도와주려고 그런 말을 꺼내

들었더라도 실제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만든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저주로 들리기 쉬운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축복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

인생에 대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약속하는가? 어느 캐디의 고백처럼 “부처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제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다. 때로는 안 되는 역사가 축복이다. 그래서 진로를 바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으로 축복해주지 않았다. 고기대신 사람을 얻는 어부로 살도록 그를 이끌어주셨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다. 세상일에 몰두해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게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해 세상일이 잘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 Packaging Service
- Taiyo Yuden Blank CD-R 판매
- 3UP CD Label 판매
- 각종 case & accessory 판매



- 1Year Warranty & Lifetime Technical Support

SKMAX TONER는



- Powder만을 Refill해 판매하는 문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 Powder Refill 제품 구매로 프린터 작동 이상이나, 프린팅 용량 부족의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 * 100% 품질 보증 !!!, 100% Satisfaction Guaranteed!!!!
- (문제 발생시 100% 교환 및 환불 보증)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 가격이 싸서 구매했던 Toner 제품의 품질에 불만족 하신분
- 저가 Refill 제품의 프린팅 용량 부족으로 불만족 했던분
- 제품 구매후 After Service에 불만족 했던 분
-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공급 회사를 만나지 못했던 분

SKMAX Toner로 연락 주세요.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해드립니다.

Hot! Hot! Hot! Special Sale Items!

LAX Media, Inc. (SKC 미주 서부 총판) 944E Pico Blvd. #4 Los Angeles CA 90021
TEL. 213-749-0909, 213-718-3189 email : laxmedia@yahoo.com

미드웨이 렌트카

최저의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할인 혜택,
직용 해드립니다.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완비(고급승용차, 스포츠카,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한국인 담당
조수아 김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후버)

기고



전호진 박사
캄보디아정교신학교 총장

우리가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슬람이 세계정복의 투쟁 이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은 이슬람 세계는 평화의 집, 비이슬람은 전쟁의 집으로 해석하고 비이슬람 세계를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그들은 이슬람과 서구, 이슬람과 마르크스주의 세력, 이슬람과 시온주의 사이에는 전쟁 상태가 존재하며, 이슬람에 대적하는 이 세력은 무슬림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며 착취할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 세력들에 대항하는 전쟁은 선포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무함마드는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나라의 정복을 지시하고 행동했다. 그래서 칼리프(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들이 칼을 들고 중동과 구라파 일부 및 북아프리카를 정복하였다. 이슬람화를 위해선 폭력도 정당화된다.

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감을 부추기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테러가 이슬람을 남지한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실제로 테러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이슬람 단체가 없다고 한다. 만약 이슬람 국가에서 테러하는 무슬림을 비난하면 도리어 보복을 당한다고 불안해 한다. 최근 서방에서 이슬람 테러를 연구하는 자

였다. 그 내용은 테러는 코란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는 이맘의 설교를 편집한 것이었다.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출신의 일부 지식인들이 이슬람을 향하여 지하드를 촉구하는 코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코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하여 싸

움을 느끼리라'(코란9:29) 등이다. 이상 인용한 코란 외에도 폭력을 선동하는 코란 구절이 더 있으나 여기서 생략한다. 분명한 사실은 코란이 지하드를 선동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 테러 때는 영향력 있는 이맘이 직접 테러리스트들을 지시하는 것이 녹음되어 얼마 전 CNN이 들려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 하순

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같은 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왜 이슬람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이슬람은 신명기 18장의 선지자와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성령은 바로 무함마드라고 주장한다. 코란 3장81절을 인용하면 이렇다.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사 성서와 지혜를 주셨노라. 그 후 한 선지자가 진리와 함께 오나니 그를 믿고 그를 도울 것이라. 이에 확신하느뇨. 너희들에게 내린 나의 성약을 지키느뇨.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확신하나이다. 그러면 증언하라 내가 증언으로써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 본문에 대한 한국어 코란 주석은 성경의 선지자와 보혜사는 무함마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약 신명기 18장18절에 무함마드가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고 아랍국가의 창설은 이사야서에 언급되고 있는데, 케다르(Kedar)는 이스마엘의 아들로 그 이름이 아랍국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속>

종교의 자유도 상호주의 적용해야

< 우리는 왜 이슬람화를 경계하는가 >

은 이슬람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이 코란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한다. 테러가 이슬람 공포증을 일으키는데 무슬림은 테러 세력을 응징하지 못하고 여론으로만 나쁘다고 할 뿐이다. 이유는 코란이 불신자들에게 폭력을 가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국회의원이 작년 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포하

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위하여 싸우나니 사탄의 무리와 싸우라. 실로 사탄의 교활함은 허약할 뿐이라'(코란 4:76),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이슬람)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 하더라도-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싸우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

인도 몸바이호텔 폭파 때 이맘이 테러리스트에게 일일이 행동 사항을 지시했다. 중요한 것은 순교하는 것을 하늘이 기다린다고 말한 내용이다. 이것은 지하드 수행을 이슬람 교리가 권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산 소령도 영향력 있는 이맘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우리가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다른 이유는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인 이슬람 학자

가 수백개 예배드려야 한다는 명제 앞에,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오늘날 엄청난 설비투자가 몇 년 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되다시피 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피망 흘러 마련엔 교회 재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간단한 인수인계, 매뉴얼 습득 정도로 시스템이 원활하면서 100% 활용될

하는 Integrate System이 항상 어디나 좋지 않다. 오히려 Block화하여 어떤 문제든 즉시 작은 범위에서 해결하려들면 쉽고 빠르다. [셋째] Block화 한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부분 교체,upgrade가 가능하도록 염두에 두고 설계, 설치가 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 기기의 호환성 또는 부분 업그레이드 시 면해야 하는 엄청난 손해가 막을 수 있다. 과유불급

예배와 멀티미디어에 대한 작은 생각

역할을 담당할 기기들과의 호환성, 작동도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결국, 오늘은 엄청난 것도 놀라운 시스템이 불과 5-6년 후에는, 언제든 지형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교체되어 가는 운명이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비상식적 감가상각(減價償却)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흥행 사업이나 이벤트에서는 별문제 될게 없다. 할리우드의 영화나 흥행 사업은 마음껏 투자하여 관객을 놀라게 해 최소 7-8배 이익창출을 목표로 처음부터 기획되기 때문에 투자에 그리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는 이와는 거리가 멀고 더욱이 흥행이나 이벤트성은 적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 분위기 일 것이다. 최대한의 성의로 우리

수 있도록 심플한 설계/설치가 바람직하다. [둘째] 마스터 컨트롤에 전체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동되어진 것은 교회엔 바람직하지 않다. 흥행 사업에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항상 목숨 걸고 붙어 있다. 전체를 원히 파악할 줄 아는 기사 밑에 또 몇몇의 전문가가 항상 어떤 문제에도 대처하기 위해 숨죽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다. 기자재 manufacture에서 강권



건강칼럼



조선훈 원장
LA 동국대 한방병원

신중플루의 유행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많이 떨어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환자가 급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추운 날씨가 감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

미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공산주의 논리와 같다.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이라는 불법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가 일어날 때 일부 이슬람 지도자들과 언론들은 이슬람이 한 테러가 아니라는 성명이나 보도를 낸다. 하산 소령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의 한 이슬람단체도 이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리고 언론들은 미국

음향칼럼



이영식 대표
킹스 미디어

여러 디지털 기기의 발전 속도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의 기능 발전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또한 엄청난 흥행이나 이벤트성 기획물 뒤에는 이들 기기들의 활약이 늘 업데이트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그 동안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등이 주축이 되어 비교적 심플한 음향 증폭장치가 가미돼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이들 기기들은 몇 십 년은 기본이고 심지어 1세기 가까이 그 기능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오늘날 디지털로 무장된 기기들은 놀라운 기능 뒤에는 기대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흐른 후, 어떤 특정 부분의 교체, 업그레이드 보수유지의 난해성과 심지어는 내구성 결핍과 대체부품실종으로 간단한 수리조차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성능의 업그레이드나 다른 새로운

감기의 계절입니다

기도 감염 질환의 일종으로 추운 날씨가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환절기,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건조하고 낮은 온도에서 감기 바이러스의 공격력은 더욱 강해지는 반면, 코, 목, 기관지 점막의 수분은 증발되어 예민해짐으로써, 인체의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방에서는 감기를 풍한사의 침입으로 인한 병리상태로 보는데, 강력한 나쁜 기운이 체내로 침입하여 정기가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와 정기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사기가 침범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여 인위적으로 이러한 증상을 억제시키면, 바이러스 즉 사기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체내 깊숙이 침투하게 되므로 병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계지탕, 마황탕, 갈근탕, 패독산 등 감기 치료에 상용되는 한약은 그 증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것들은 인체의 정기를 북돋아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사기를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감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엔 감기예방과 치료에 좋은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동국대 한방병원장 조선훈 213-487-0150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용자) 용자조정, 용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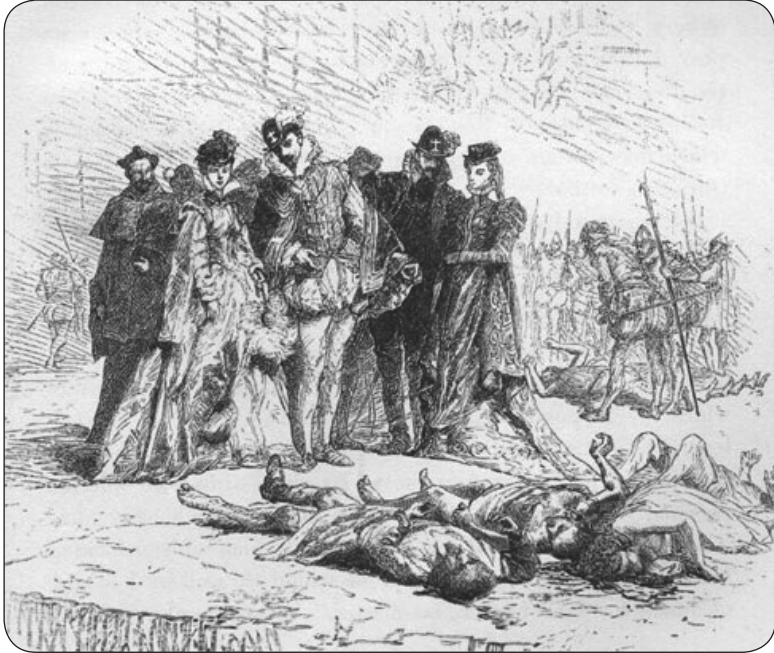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위그노의 거장’ 가스파 드 폴리니 제독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가스파 드 폴리니



시신들을 보며 즐기는 샤를르 9세.



훗날 감옥으로 바뀌었고, 많은 위그노들이 이곳에서 죽어갔다. 감옥의 벽에는 수많은 사면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으로 큰 전공을 세우게 되면서 안느를 이어 권력의 핵심부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를 느낀 까뜨린의 음모로 결국 폴리니가 저격을 당하게 되며, 샤를르 9세는 모후(母后) 까뜨린과 동생 앙주 공과 함께 부상당한 폴리니 제독을 찾아간다. 폴리니 제독은 왕과 독대 후, 플랑드르 지역에서 스페인에 대항해 계속 싸워줄 것을 요청하지만 까뜨린의 개입으로 대회는 중단된다. 왕은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상처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오”라며 복수를 약속하고 떠난다. 곧이어 위그노 지도자들이 제독의 집을 방문하자, 폴리니는 위협을 피해 곧 파리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왕의 말을 신뢰하고 기다려 보자는 지배적 의견으로 파



제네바 개혁자 동상 옆에 있는 폴리니 동상

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 하지만 왕은 모후 까뜨린이 저격의 배후 세력임을 알게 되자 배후 세력을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앙부와 즈의 음모를 시도했던 사건을 떠올리며 차라리 위그노 세력들의 정치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살해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국 왕은 왕의 군대 외에 용병을 고용하였으며, 주교의 통제 아래 있던 시민 상비군을 동원한다. 왕과 함께 주교와 교구 사제들은 파리 12개의 각 교구에 연대에 해당하는 시민 상비군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학살을 계획한다. 새벽 2시에 앙리 기즈는 rue de Bethizy (현재 rue Saint Honore)에 있는 폴리니 제독의 집을 포위하였으며, 이 지역의 가톨릭 주민들은 미리 포진시킨 후 거사를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독은 한밤중에 소음이 계속 이어지고 간혹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기즈 일가에서 자라났던 제독의 하인인 뵘즈(Besme)는 기즈의 명령을 받아 제독 집의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폴리니는 자신의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함께 있던 메를랑(Merlin) 목사에게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부탁드리는 기도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오래 전부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소. 하지만 당신들은 피신하여 목숨

을 구하십시오.”라 말한다. 곧 제독의 주변 사람들은 옥상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죽고 부하 Cornaton과 Merlin 목사만이 피신하게 된다. 곧이어 암살자들은 배신자 뵘즈의 인솔을 받고 그의 집사로 들어닥친다.

뵘즈는 제독에게 “그대가 제독인가?”라고 말하자, 폴리니는 의연하게 “젊은이, 자네는 부상으로 이미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왔지만,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 생애를 크게 단축시키는 것은 없네.”라고 대답한다. 뵘즈는 손에 들고 있었던 창으로 제독의 가슴을 찌른후 머리를 두들기자, 제독은 그대로 쓰러진다. 그러자 주변의 가톨릭 교도들은 소지한 무기로 폴리니를 다시 찌르고 때렸다. 그 순간 제독의 뺨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기즈 공작이 창문을 향하여 소리쳤다. “뵘즈야! 끝났는가?” 그러자 “네! 주인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 대답한다.

살인자들은 제독의 시신을 창문 밖으로 던졌고, 기즈는 피투성이가 된 시체로 다가가 피를 닦은 후 제독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독의 얼굴을 발로 힘껏 걷어차며, 곧 머리가 잘려져 나갔고, 그의 머리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까뜨린에게 보내졌다. 그후 방부 처리가 된 그의 머리는 교황에게 보내졌다. 그의 몸은 양팔이 잘라진 채 길거리 여기저기에 3일 동안 끌려 다니다가 발목에 밧줄로 묶어

외곽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친구이자 친척인 프랑수아 드 몽모렌시가 시신을 수습한 후 폴리니의 집인 샤틀롱성(Chateau de Chatillon)으로 보내어 장례하였다.

1972년에 루브르 동편, 대학살의 시작을 알렸던 생 제르망 록세흐양 성당을 가로 지르는 길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라 바뀌게 된다. 폴리니의 살해를 시작으로 대학살은 전국으로 번져 나갔고, 샤를르 9세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즐기고 싶어 거리를 나서게 된다. 그러나 학살의 악몽으로 밤마다 시달렸고 이를 잊기 위해 술과 쾌락에 빠져 지나다가 2년 후 1574년 방센 성(Chateau de Vincennes)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독일인이었던 배신자 뵘즈는 훗날 위그노들에게 “제포위었고...!”란 “뵘셀(La Rochelle) 시민들은 그를 교수형에 처한 후 네 토막으로 자르려 했으나 Bretainville에 의해 살해된다. 한편 까뜨린은 남편 앙리 2세의 죽은 이후 세 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 세 아들들의 잔혹한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비운의 여인이다. 그녀는 이태리 문화를 프랑스에 도입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세웠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 채 1589년 만 70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다음 주에 계속)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의 선교사 pariskwon@hanmail.net



제독 모친의 목사였던 모호(Maure) 목사의 최후 모습과 살해된 후 창문으로 던져져 참수당한 폴리니 제독의 최후 모습.

쥘레브 종교 개혁 공원의 개혁자 석상 좌우에는 각국의 주요 개혁자들의 석상들이 함께 있다. 그 중 석상 오른쪽에 우리에게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프랑스 위그노를 대표하는 폴리니 제독의 동상이 서있다. 칼뱅은 프랑스 종교 개혁의 원리적인 것들을 제공했다면, 폴리니 제독은 그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에 옮긴 위그노의 정신적 지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학살로 희생되지 않았다면 프랑스 역사가 바뀔 뻔했던 주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폴리니가 유명 귀족 가문으로 왕정의 주요 인물로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폴리니 1세가 1514년에 아

이 셋을 가진 과부 루이즈(Louise de Montmorency)와 결혼하면서 부터이다. 루이즈의 동생 안느 드 몽모렌시(Arne de Montmorency)는 훗날 유명 가문의 군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 그러나 폴리니 제독이 세 살 때인 1522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삼촌 안느가 교육을 책임지게 되면서 폴리니는 어릴적부터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가정교사인 니콜라(Nicolas Berauld)는 에라스무스와 프랑스 인문주의 대가인 기욤 부데(Guillaume Bude)와 친밀히 교류를 나누던 사이였다.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삼촌의 기대와는 달리 삼촌을 따라 군인이 되었고, 해군 제독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 텍스트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 프라이밍 생등심
- 프라이밍 갈비살
- 샤브 샤브
- 프라이밍 꽃살
- 초이스 컴갈비
-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 오리고기
- 흑염소
-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7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기형 대표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찜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속터졌던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20~30야드 더 멀리

Carbite 맞춤 드라이브

파격 SALE

\$500 → \$149
\$300 → \$99

한.불.보.장
20-30야드 더 멀리
나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EAGLE GOLF
213-858-7979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웨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컴퓨터의 모든것

Computer & DVR

- 출장수기 once \$29, monthly \$50
- 컴퓨터 판매 - DVR 판매, 수리
- 인터넷(Virus) 문제해결 - 4ch DVR \$599부터

James Oh **213.814.9004** / www.comdvr.com
3200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브레이크
- 타이밍벨트
- 튼업.정비

10% 할인

\$12.99 *tax 6cyl.
\$ 9.99 *tax 4cyl.
\$14.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결혼 꽃 전문 꽃어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전문

(213) 700 6484 (24Hrs)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튼 전문 업체

CITI BLINDS.

MR 박은철이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증고 유리
- 넙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둘 맞는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카펫 클리닝

트럭마운트, 고온 스팀샴푸, 의자, 쇼파,
타일 등, 바닥왁스 (본인 직접시공, 성실 봉사)

213-839-0300, 818-419-5548
101 CLEANING 서비스

집수리 일체

내집처럼 성실하게 저렴하게

(714) 749-6406

K ONE Plumbing

- Faucet, 디스포설, Water heater, 보일러
- 싱크, Toilet, 욕조, 각종밸브, 수리, 설치, 교환
- 리파이핑 무료 견적
- 새는 곳, 막힌 곳 플러밍 문제 상담 환영

213.663.6854

< 교회 플러밍 공사 특별할인 >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HYUNDAI, WINIA, SAMSUNG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Joseph INTERIOR

요셉 인테리어

- 창문, 도어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잇
- 페리, 텍크, 펠스,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물당, 페인팅 (아우스, 점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323.788.8689 김에스터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자체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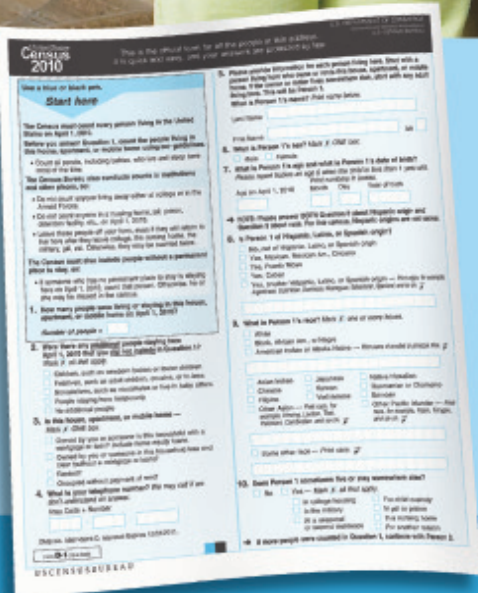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라이선스 보행, 완벽”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길-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인구조사 양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커뮤니티의 학교 개선, 직업훈련 증가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신 후 양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의 커뮤니티를 키울 힘이 있습니다.

-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3월에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양식에 답변하신 후에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